KIEP 북경사무소
KIEP Korea-China Economic Forum
한중경제포럼
제09-09호 2009년 12월 24일

2010년 중국경제 어떻게 견인할 것인가?

2009년 제8회 한·중 경제포럼

1. 주 제 : 2010년 중국경제 어떻게 견인할 것인가?
2. 일 시 : 2009. 12. 10 (목) 16:00~18:00
3. 발표자 : 중국 발전연구기금회 탕민(汤敏) 부비서장

1. 중국경제는 회복했는가?

❑ 지난 30년간 중국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0% 수준에 달하였지만 파동성이 컸음.

- 1980년~2008년 사이 중국 경제는 빠른 성장률을 보였지만,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낸 시기도 있었음.

- 특히 2007년 말 중국경제는 경기 과열현상과 인플레이션 등 문제로 인해 조정 시기에 들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부터 중국 경제는 조정을 받고 있었음.

- 2008년 하반기 이후로는 글로벌 경제위기 영향을 받아 경기 하락이 지속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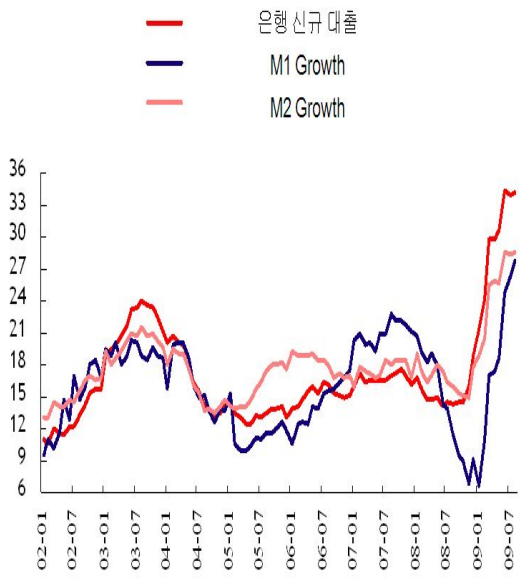
❑ 소비, 투자, PMI 등은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면서 2009년 2/4분기부터 중국경제는 회복 단계에 진입하였음.

❑ 중국의 소비는 사상 유래 없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음. 실질 소비성장률은 2008년부터 빠른 성장률을 보여 2007년 이전의 성장률을 초월하였음. 따라서 글로벌 금융 위기 중에 소비는 중국경제 성장의 버팀목이었다고 할 수 있음.

❑ 2009년 2/4분기부터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도 사상 유래 없는 빠른 성장세를 나타냈으며, 이는 중국정부의 4조 위안 경기부양책 보다는 은행의 신규대출에 힘입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림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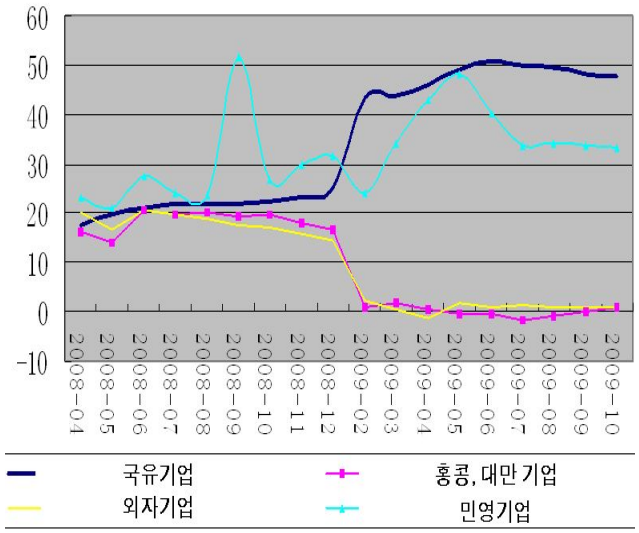
<그림1> 은행 신규대출 증가율 추이

단위: %



<그림2> 기업유형별 고정자산 투자증가율 추이

단위: %



- 4조 위안 투자는 2년에 걸쳐 실현될 것이어서, 한 해 투자액은 2조 위안 정도임. 이 중 중앙정부에서 5천 억 위안, 지방정부에서 5천 억 위안 투자하였음.

- 2009년 중국 신규대출은 9~10조 위안에 달하였으며, 대출증가율은 과거의 2배에 달하였음.

- 관련 분석에 따르면, 상반기 신규대출 중 51.6%가 인프라 산업에 투입되었고, 11.3%가 부동산 산업에 투입되어 건설부문에 투입된 액수가 전체 대출의 63%를 차지하였음.

- 외자기업의 신규 투자는 거의 없었고 민영기업 신규 투자도 하락세를 나타냈으며, 국유기업의 투자비중이 가장 높았음(그림2 참조). 신규대출 중 대기업이 47%, 중기업 44%, 300명 이하 직원을 보유한 소기업은 불과 8.5%를 차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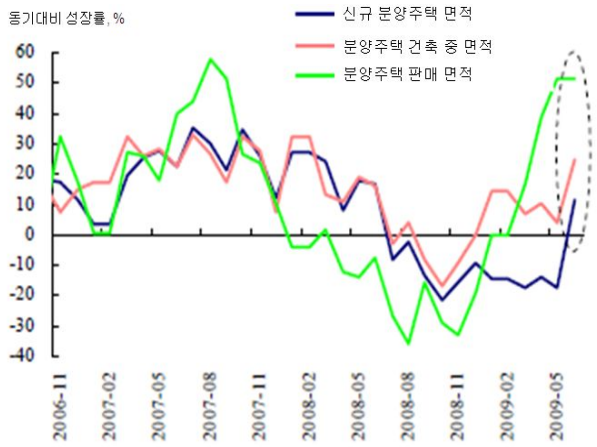
❑ 자산시장도 빠른 상승세를 나타내었음.

- 2009년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부동산 산업도 2008년의 하락에서 빠른 회복세를 보였음. 부동산 가격, 판매면적, 신규 분양 주택 면적 등이 모두 상승세를 보였음(그림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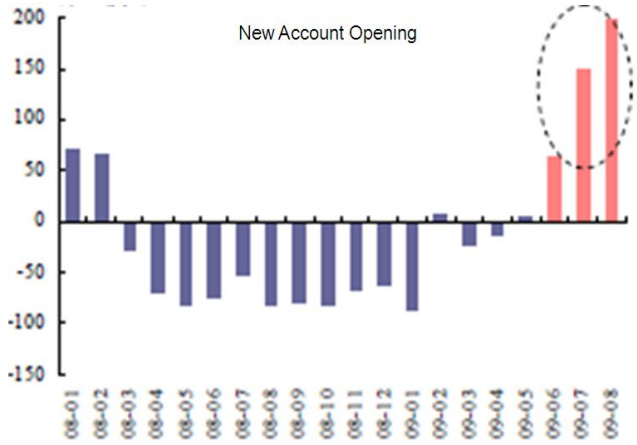
- 중국 주식가격은 2007년의 최고점에서 2008년에 대폭 하락하였지만, 2009년 들어서 회복세를 나타내어 비교적 높은 수준에 달하였고 신규 주식계좌 개설수도 빠른 성장세를 보였음(그림4 참조).

<그림3> 부동산 관련지표의 성장률 추이

단위: %



<그림4> 신규 주식계좌 개설 수



❑ 중국경제가 회복단계에 들어섰지만, 수출은 외부환경의 영향을 받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

음. 다만 최근의 수출 PMI와 신규 주문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희망적임.

❑ 전반적으로 2009년 중국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있음.

- 특히 중국경제의 빠른 회복은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은행의 신규대출에 힘입은 것으로, 이러한 성장모델에 커다란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음.

2. 2010년 중국 경제 전망

❑ 2010년 중국경제는 전반적으로 2009년 보다 호전되고 인플레이션도 높지 않을 것이어서 비교적 낙관적으로 전망함.

❑ 2010년 미국, 일본, EU에서 2009년 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실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010년 중국경제의 외부환경은 어느 정도 개선될 전망임.

- 전 세계 30여 개 연구기관에서 미국, 일본, 유럽의 2010년 경제성장에 대해 공동 예측한 결과, 미국은 2.4%, 일본은 1.5%, EU는 1.0%의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인플레이션도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음(표1 참조).

<표1> 2009년과 2010년 선진국의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예측

단위: %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	
	2009년	2010년	2009년	2010년
미국	-2.6	2.4	-0.6	1.7
일본	-5.7	1.5	-1.2	-0.6
EU	-3.9	1.0	0.4	1.2

❑ 경제성장률

- 2009년 4/4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을 10.2%로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0년 성장률은 1/4

분기의 10.4%에서 점차 하락하여 4/4분기에 9.1%를 기록, 평균 9.5%~9.6%로 전망됨. 9% 이상의 GDP 성장률은 2011년까지 지속할 것으로 보임(표2 참조).

<표2>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예상치

단위: %, 10억 달러

	2008		2009				2010				2011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GDP 성장률	9.0	6.8	6.1	7.9	9.7	10.2	10.4	9.7	9.4	9.1	9.0	9.1
공업 부가가치 증가율	13.0	6.4	5.4	9.0	10.0	12.5	13.7	13.0	13.1	12.9	12.1	12.7
CPI	5.3	2.5	-0.6	-1.5	-0.9	0.7	1.8	2.2	2.3	2.4	2.4	2.4
무역흑자액	83.3	114.3	62.6	34.7	56.7	91.4	59.5	40.0	55.6	82.2	57.5	33.8

❑ **인플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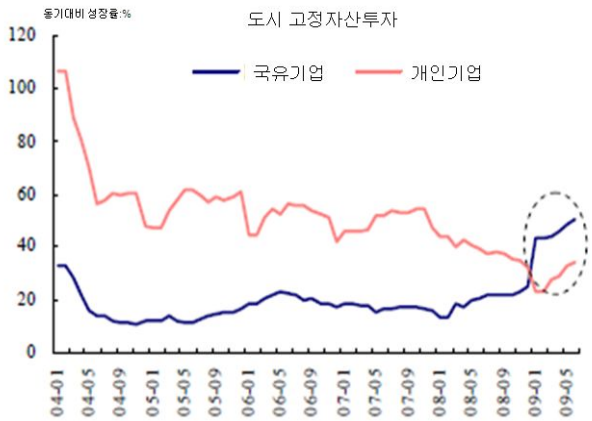
- 인플레이션은 2009년 4/4분기에 플러스로 반전하여 2010년 1/4분기 1.8%, 4/4분기 2.4%로 평균 2.3%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0년 인플레이션은 높지 않고 통제 가능한 수준일 전망

❑ 2010년 민영기업 투자가 빠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2009년 국유자본의 투자가 증가한 반면 민간자본의 투자가 감소되었지만, 지난 몇 년간 민간투자 증가율은 국유기업의 투자 증가율을 초월하여 왔음(그림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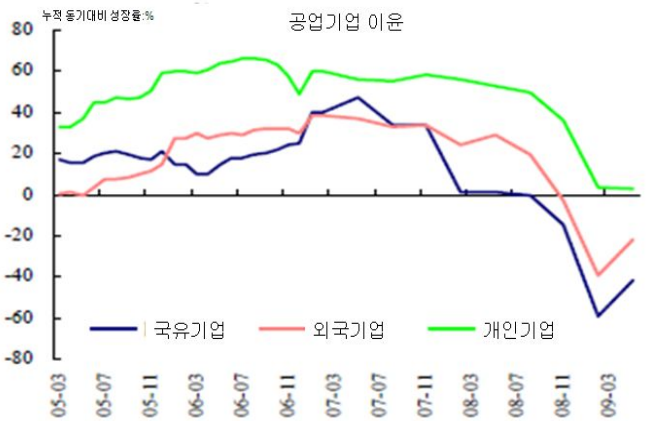
<그림5> 기업유형별 투자 증가율 추이

단위: %



<그림6> 기업 유형별 공업 이윤 증가율 추이

단위: %



-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민영기업의 이윤이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플러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반면 국유기업 이윤은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음(그림6 참조).

- 지난 10여 년 간, 민영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빠른 성장세를 보여 경쟁력도 향상되고 있는 만큼 2010년 민영기업 투자는 더욱 빠른 상승세를 나타낼 것임.

❑ 2010년 경제성장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소비의 촉진이며, 향후 농촌시장이 중국의 거대한 소비 중심지로 부상할 것임.

- 농촌과 도시 100가구당 가계의 가전제품 보유량을 볼 때, 농촌 100가구의 컬러TV 보유량은 2000년의 48.74대에서 2007년의 94.38대로 상승하여 무려 100% 증가하였지만, 도시의 증가율은 15%에 불과하였음(표3 참조).

- 가계수를 기준으로 볼 때, 농촌 가계수는 도시의 2배에 달함. 즉, 2000~2007년 80% 이상의 컬러TV는 농촌에서 소비된 것임.

-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기타 가전제품의 소비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2000~2007년 농촌 에어컨소비는 무려 7배 증가하였고 도시 에어컨소비는 3배 증가하였음.

<표3> 중국 농촌과 도시 100가구 당 가전제품 보유량

	컬러TV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연도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2000	48.74	116.60	28.58	90.50	12.31	80.10	1.32	30.80
2001	54.41	120.50	29.94	92.20	13.59	81.90	1.70	35.80
2002	60.45	126.38	31.80	92.90	14.83	87.38	2.29	51.10
2003	67.80	130.50	34.27	94.41	15.89	88.73	3.45	61.79
2004	75.09	133.44	37.32	95.90	17.75	90.15	4.70	69.81
2005	84.00	134.80	40.20	95.51	20.10	90.72	6.40	80.67
2006	89.43	137.43	42.98	96.77	22.48	91.75	7.28	87.79
2007	94.38	137.79	45.94	96.77	26.12	95.03	8.54	95.08

자료출처:Wind

❑ 농촌 이외에 지역사회 서비스업, 전 국민 건강소비, 문화오락소비, 여행휴가소비 등을 비롯한

서비스업이 빠른 성장세를 보여 중국에서 소비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분야로 부상할 전망임.

❑ 한편 2010년 중국경제에 다음과 같은 도전 과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재정정책과 화폐정책은 2009년보다 더 확장하지 않을 것으로 어떻게 2010년 GDP 성장률을 견인할 것인가?

-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10년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완화된 화폐정책이 변하지 않는 기조에서 대응성과 융통성을 추가하였음. 그렇다면 어느 분야에 대한 대응성과 융통성을 강화할 것인가?

-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또한 경제성장의 질과 효율을 향상시킬 것을 제시하였음. 기존 중국경제의 질과 효율은 아직 이상적이지 못함. 어떻게 경제의 질과 효율을 향상시킬 것인가?

- 민간소비를 어떻게 견인할 것인가?

- 국유자본의 증대와 민간자본의 감소 문제(国进民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중소기업 발전 촉진에 관한 국무원의 29가지 조치를 어떻게 실시해야 할 것인가?

- 기후변화와 중국의 대응으로, 어떻게 기후변화를 투자대상으로 부상시킬 것인가?

3. 미래 기회는 어디에 있는가?

❑ 전체적으로 2010년 중국경제는 비교적 좋은 양상을 나타낼 것이고 외부환경과 내부 환경이 모두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경제의 관건은 2010년 경제성장률이 8%나 9% 이상을 실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2010년 대규모 자금 투입의 기회를 빌어 구조조정을 실현하는 것임.

-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10년 경제성장률 9%를 달성한다 할지라도 중국경제의 지속가능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따라서 2010년에는 더욱 많은 개혁과 구조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향후 중국경제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날 전망임.

- 국가성장모델의 변화: 현재의 외수주도형 성장에서 내수주도형 성장으로 전환

- 국가정책의 변화: 국유 및 대·중기업에 대한 관심에서 민간 및 소기업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

- 산업진입의 변화: 독점 강화에서 투명 개방으로 전환하여 독점산업을 점차 개방

- 금융기구의 변화: 더욱 많은 은행이 소기업을 위해 대출을 제공.

- 자본시장의 변화: 국유 대기업에서 민간 중소기업으로 전환. 기존 차스닥 시장은 하이테크 기업, 민영 중소기업의 상장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

- 재정정책의 변화: 과중한 세 부담에서 감세, 지원을 강화.

- 글로벌 문제인 지구 온난화문제를 더욱 중시할 전망임. 과거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해 중국정부는 소극적인 태도였지만, 점차 주동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임.
  - o 개인적으로 매년 30년 만기 0.5% GDP 탄소채권(碳债)을 발행하여 지금의 배출감축을 지원하고, 매년 1,500억 위안을 투자하여 배출감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함.

〈질의·응답〉

질문 1.

1) 원칙상 M2 증가율은 명목 GDP 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야 함. 하지만, 2009년 3/4분기 중국 GDP 성장률은 7.7%인 반면 M2 증가율은 30%에 달하였음. 따라서 2010년 중국의 인플레이션의 발생 가능성이 크고, 국제 주요상품의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의 발생 리스크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2) 중국에서 2009년 경기부양책으로 투입된 4조 위안이 중국 경제성장에 대해 아주 큰 역할을 하였음. 4조 위안 중 2009년 집행된 금액이 얼마이고 2010년의 투입 예산은 얼마인가?

3) 2009년 중국 주가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상승 수준을 나타냈음. 이러한 상승은 중국기업 이윤의 증가로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유동성 증가에 의한 것인가?

4) 위안화 평가절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1.

1) 원칙상 M2 증가율은 GDP성장률에 CPI를 추가한 것으로 나타냄.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공식이 성립되지만, 분기별로 모두 성립한다고 할 수 없음. 게다가 2009년과 같은 특수한 해의 경우 이러한 특수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정상적임.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화폐공급이 빠른 증가세를 보였음. 통화량의 빠른 증가로 꼭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할 수 없음. 증가된 통화량이 어디에 투입됐는가를 판단해야 함. 예컨대, 미국 FRB 전 의장인 그린스펀은 2001년과 2002년에 확장적인 화폐정책을 실시하여 대량의 화폐를 투입하였지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았고 주가 상승과 부동산시장의 버블을 형성하였음. 지금 중국에서도 이러한 현상의 발생을 우려하고 있음. 사실 중국뿐만 아니라 전체 아세아에서 모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아울러 CPI의 정의와 기존 CPI 계산방법과도 일정한 관련이 있어 이러한 계산방법을 개선해야 함. 기존의 계산공식에 부동산가격과 주가의 상승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다만 주택임대 가격을 포함시킨 것임. 하지만 부동산가격은 상승하는 반면 주택임대 가격은 하락하기 일쑤임. 2010년 중국의 인플레이션 리스크

는 여전히 존재함. 지난 30년 중국 CPI 상승을 돌이켜보면, 일반적으로 식품가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 식품가격은 또한 농산품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농산품가격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음. 따라서 2010년 CPI 상승의 주요인은 중국과 세계 농산품가격이라고 말할 수 있음. 중국의 경우 국제유가의 영향이 크지는 않음. 투입된 자금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부동산가격과 주가상승의 주요인으로 될 가능성이 큼.

2) 4조 위안의 투자 중, 2009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각각 5,000억 위안 투입하였고 2010년에도 이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2009년 투입된 1조 위안 중 일부는 원래 계획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신규 투자된 자금은 5,000~6,000억 위안에 불과함. 2009년 중국 경제를 견인한 주요인을 꼽는다면 4조위안의 경기부양책보다는 은행의 신규 대출이라고 할 수 있음.

3) 2009년 1/4분기부터 중국 기업 이윤은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하지만 주가의 대폭 상승 주요인은 느슨한 통화정책에 힘입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음.

4) 2010년 중국 환율에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함. 중국 수출입상황이 낙관적이지 못하고, 과거 경험을 봤을 때 위안화 평가절상은 무역 흑자와 외환보유고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음. 일회적인 위안화 평가절상을 실현하려면 최저 30% 평가 절상해야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중국기업에서 감내하기 어려울 것임. 중국 정부에는 이러한 위험한 정책을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질문 2.

개인적으로 중국 경제 성장률이 2009년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판단함. 소비촉진책이 2009년 많이 추진됐는데 자동차, 가전제품 등 상품은 한번 구입하였을 경우 오랜 시간 사용 가능한 것임. 따라서 소비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음. 투자 역시 마찬가지임. 철도 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는 자주 발주할 수가 없음.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2010년 소비와 투자 등이 경제성장에 대해 공헌하는 정도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함.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2.

중국은 시장이 크고 잠재력 또한 매우 큼. 한 가정에서 자동차를 구입하였을 경우 오랜 시간 사용 가능한 것이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직 미구입 상태임. 2010년 중국소비 성장률이 2009년보다

높지 않을 가능성은 있지만, 여전히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임. 투자도 역시 마찬가지임. 중국은 지역이 크기에 철도 수요가 많고 이러한 철도건설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완공될 것임. 중국의 발전 잠재력은 아주 큼.

질문 3.

매년 30년 만기 0.5% GDP 탄소 채권 발급을 언급하셨는데, 이러한 재정 지원은 아주 참신한 방법이라고 생각함. 이는 적지 않은 자금인데 자금은 누가 지출하는 것인가? 채권발행을 현재 정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가?

답변 3.

탄소채권 발행은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한 것임. 지구 온난화 문제는 경제학자 시점에서 볼 때 이는 막대한 투자라고 생각함. 지구 온난화 문제는 지난 20세대(약 200년)에 걸쳐 발생된 것이고, 향후 50년이나 100년 이후에 지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우리 세대가 이러한 25세대(약 250년)의 책임을 모두 부담할 수는 없음.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세대에서 GDP 1%를 지구 온난화문제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 2050년 이후 우리 후손들은 최저 GDP 20%를 투입해야 함. 이렇게 될 경우, 우리세대가 후손들로부터 자금을 빌려서 우리가 절반을 부담하고 50년 이후의 후손들이 절반을 부담하여 공동으로 지구 온난화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예를 들면 우리 세대에서 0.5% GDP 자금을 제공하고 2050년에 만기하는 40년의 0.5% GDP 채권을 발행하여 2050년에 이자까지 추가하여 상환하는 것임. 이런 방식으로 탄소채권을 재차 발행하는 것임. 이자까지 추가할 경우, 2050년이 돼서 0.5% GDP는 상당히 높은 액수에 달할 것이지만, 그때가 되면 GDP가 높은 수준에 달하여 그 당시 GDP의 0.1%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개인적인 견해이고 중국 정부에서 동 방법을 채택할지 여부는 다른 국가의 탄소채권 발행 여부를 참고할 것임. 세계 각국에서 모두 이러한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함. 금번의 코펜하겐 협상은 아주 중요한 것으로써, 새로운 융자모델을 모색해내지 않을 경우 우리 후손들은 지구 온난화문제로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임.

질문 4.

1) 위안화 평가절상을 하지 않는다면, 일일환율 변동폭은 조정 가능하다고 생각됨. 일일 환율 변동폭이 확대될 가능성은 있는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확대 가능한가?

2) 중국경제를 견인하는 것은 소비와 투자인데, 그 중 투자의 주체는 정부이고 민간기업 투자는 이를 따라가는 추세임. 하지만 소비 주체는 정부인가 아니면 가계인가? 가계라면 나이별로 30대가 주체인가 아니면 40대 인가?

답변 4.

1) 일일환율 변동폭은 기술적인 문제로 중요한 문제가 아님. 단기간 내에 위안화 평가절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2) 소비는 아주 어려운 문제임. 어느 정부에서든 소비를 촉진시키기 어려운 것이고 소비부족 문제는 중요한 경제문제임. 정부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은 사실상 경제성장 촉진에 효과적이지 못함. 정부에서 교육, 사회보험, 의료 등 부문의 소비를 증가하였을 경우 정부의 재정부담도 심각해지고 따라서 조세를 많이 징수하게 될 것이어서 구축효과가 나타날 것임.

민간소비 촉진은 단기 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임. 소비의 증가는 소득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따라서 2010년의 소비 증가를 위해 국민들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이 극히 중요하지만 정부에서 자금을 발급할 수도 없고 기업을 압박하여 급여를 인상시키지도 못함. 또한 소득이 높아졌어도 중국의 사회보험 체계가 아직 완벽하지 않아 사람들의 미래 불확실성이 커 여전히 소비부진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양로보험, 의무교육 등 사회보장 체계가 개선될 경우, 중국 서민들도 점차 저축 보다는 소비를 하게 될 것임. 하지만 중국 일인당 GDP는 한국의 20%에 해당되는 3천불에 불과함. 이러한 조건에서 완벽한 양로보험 체계의 구축은 불가능한 것임.

소득의 증가와 사회복지 체계의 완성은 중장기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없음. 2010년과 2011년에 소비가 아주 빠르게 성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임. 중국정부에서 발표한 소비 진작정책은 일정한 효과가 있을 것이지만 아주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임. 2010년 중국경제는 여전히 빠른 투자에 힘입어 성장할 것임. 다만 국유기업 투자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투자가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기를 희망함.

질문 5.

민간소비와 투자를 많이 강조하셨는데 어떠한 정책으로 추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답변 5.

민간소비 촉진에 대해선 큰 기대를 갖지 않고 있음. 민간 투자는 여전히 아주 큰 발전 잠재력이 있다지만 기존 문제점은 민간 융자 메커니즘의 부족임. 민간 기업은 주로 300명 이하인 중소기업으로써 전체 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전체 고용의 60~70%를 담당하며 GDP의 50%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 신규 대출에서 차지한 비중은 8%에 불과함.

대형 은행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발급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중·소기업의 융자난은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등 여타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중국의 대형 은행은 대부분이 국유은행으로써 정치적 리스크가 비교적 작은 국유기업에 더욱 많은 대출을 하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특수한 정책이 필요함. 한국에서 기존 실시하고 있는 소기업담보체제, 중소기업에 대한 감세, 지원정책, 정부구매에서 중소기업 선호 등 정책을 참고해 볼만함.